



#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김범준 / 주간·한영균  
편집장·김나연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전 국민 '96%' 신청, 소비 쿠폰이 지역에 남긴 실질적 영향

기획 >> 4면

청문단·GKS의 내일을 듣다

현장르포 >> 5면

단종과 역사, 현재가 어우러진 곳 - 영월 문화탐방기

제592호

2025년 9월 4일(목)

## 하나 되는 풀잎들... 서경대학교 점퍼 본격 배부 시작

### 공모전 · 학생 투표 · 제작 거쳐 개강 후 일괄 배부

지난 3월부터 진행됐던 '서경대 점퍼 디자인 공모전'의 결과가 비로소 결실을 본다. 8월 18일, 총학생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 1일부터 9월 5일, 12시부터 18시까지 청운관 7층 총학생회실에서 배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점퍼는 3월 10일 공모전 공고를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1차 심사는 교내 교원과 전문가가 진행해, 상징성·심미성·적합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최대 수상작의 2배인 총 8개 작품을 선정했다. 2차 심사는 재학생이 직접 뽑는 구결 설문조사 투표를 했다. 투표 내 득표수는 점수로 환산되며, 최종 점수는 재학생 투표 40%와 1차 심사 점수 60%를 합해 결정한다.

학생 투표를 포함한 1·2차 심사를 거쳐 4월 16일 수상작이 발표됐다. 총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까지 4개 작품이 선정됐다. 대상은 디자인학부 학우, 최우수상은 광고홍보콘텐츠학과 학우, 우수상은 디자인학부 학우, 장려상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학우가 수상했다.

수상작은 학교의 상징성과 실용성을 적절히 조합했다. 예를 들어, 대상 디자인은 검정 톤의 토퍼 실루엣에 'S.K.U' 우리대학 이니셜을 자연 모티프로 배치해 절제된 인상을 줬고, 다른 수상작들은 건립 연도 표기, 학번·타이포그래피를 넣어 정체성을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공지를 통해 수상작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한 점퍼 시안을 공개하며 6월 2일부터 6월 9일

까지 가수요 조사를 받았다. 시안이 공개되자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공모전 수상작과 시안이 차이가 커서 불만이 많다." "수상작 디자인을 적절히 섞고 야구점퍼로 하니까 좋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서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수요 조사를 했다. 점퍼의 가격은 기본 점퍼 48,000원(4XL 크기 53,000 / 5XL 크기 58,000), 크롭 점퍼는 47,000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학교 점퍼 선택지는 일반 기장뿐만 아니라 크롭 기장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수령 대상은 점퍼 구매 사전 신청 및 결제까지 완료한 사람이다. 신분증 지참 후 서경포탈 메인화면을 인증하면 받을 수 있다. 본인 외 대리수령은 불가하며, 수령 기간 후에는



▲ 출처 :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별도로 배부 및 수령이 어려우니 기간 내에 방문해야 한다. 배송 상황에 따라 배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총학생회를 통해 안내된다.

이번 사업은 대학혁신추진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학혁



신추진사업단은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학생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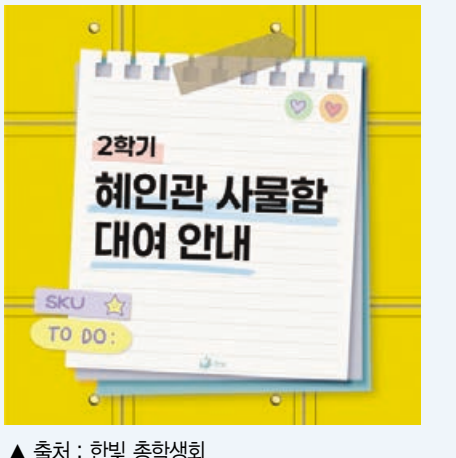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한빛 총학생회, 2학기 헤인관 사물함 대여 사업 실시

한빛 총학생회가 2025학년도 2학기 헤인관 사물함 대여 사업을 시행했다. 사물함 사용기간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수요일까지다. 총학생회는 학사 일정 변동 시 이용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여 비용은 총학생회비 납부자는 무료, 미납부자는 10,000원이었다. 신청 기간은 지난 8월 20일 수요일 09시부터 22일 금요일 18시까지였다. 이후 8월 25일 월요일 18시 이전,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로 사물함 위치를 배정했다. 사물함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으며, 층별 선착순으로 배정됐다. 이 중 2층과 4층은 전자 사물함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에 층별로 주어진 네이버 폼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선착순 마감 시 자동으로 폼이 마감되는 방식이었다.



▲ 출처 : 한빛 총학생회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비를 맞던 소년, 우산이 되기까지

### 서경대 언어문화교육원 홍보대사 보이스토리, <보이즈 2 플래닛>에서의 성장과 도전



▲ 출처 : Mnet

보이그룹 '보이스토리' 멤버 한위·즈하오·션룽·저위가 본교 언어문화교육원 학생 명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본교 언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 과정은 2016년에 설립돼, 외국인 혹은 해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8년 9월 21일 데뷔한 보이스토리는 JYP의 중국 법인 JYP 차이

나와 TME(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가 합작 설립한 신성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이다. JYP 현지화 전략인 '글로벌라이제이션 바이 로컬 라이제이션'(Globalization by Localization)을 기반으로 탄생한 첫 그룹으로 한위·즈하오·션룽·저위·밍루이·슈양 여섯 멤버로 구성됐다. 보이스토리는 2023년 올해의 라이징

그룹상을 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본교 언어문화교육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보이스토리 인터뷰 영상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를 묻는 말에 션룽은 "한국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서경대가 멤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라는 질문에 저위는 "처음 대학 생활이 시작된 곳", 션룽은 "친구들이 많이 사귀고 선생님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다"라고 답했다.

한위, 즈하오, 션룽은 Mnet <보이즈 2 플래닛>에 참가해 '케이팝 유경험자 신분'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한위는 1회 34위, 2회 29위로 시그널송 개인 직캠 조회수를 합산한 최종 계급에서 노스타를 받으며 아쉽게 탈락했다. 이후 보이스토리 SNS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 '꿈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라고 케이팝에 대한 꾸준

한 열정을 보였다.

허션룽은 1회 14위, 1차 생존자 발표식에서 9위였으며 올스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3회에서 어린 참가자 나운서를 침대맡에서 재우며 "내가 비 맞아 봤으니까 우산을 씌워줘야 해"라는 대사로 감동적인 서사를 보여 화제가 됐다. 이어 6회에서 모든 팀원이 C그룹인 상황을 고려해 투표를 포기하고 참가자 김건우에게 리더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으로 또 다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리츠하오는 2차 계급 결정전에서 투스타를 받았으나 이후 올스타로 변동되는 반전을 보였다. 1차 생존자 발표식에서 31위를 받으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본교 언어문화교육원 홍보 특임에 따르면, 한위·션룽·즈하오·저위는 9월 학기에 서경대 학부로 입학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서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미래융합대학 분리해 '융합대학' 신설

서경대학교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 체제를 일부 개편한다. 학교 측은 8월 18일 학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미래융합대학 일부 학과가 '융합대학' 소속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으로 군사학과(정원 40명),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20명), 스포츠엔테크놀로지학과(30명) 등 총 90명이 새로운 융합대학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미래융합대학 정원은 770명에서 680명으로 조정된다.

학교는 8월 25일 14시 본관 3층에

서 대학평의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따라 2026학년부터는 신설 융합대학 소속으로 입학하게 되며, 2023~2024학번은 기존 융합대학, 2025학번은 미래융합대학, 그리고 2026학번 이후는 새로운 융합대학이라는 다소 복잡한 구조가 형성된다. 소속 변경은 가능하지만,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 사 령

#### 9월 4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수습기자 최소정 (아동 22)
- ▶ 면 수습기자 전세찬 (미용1 25)
- ▶ 임 부편집장 윤정현 (전자 22)
- ▶ 임 수습기자 김서연 (미용2 25)
- ▶ 임 수습기자 송재이 (미용1 25)
- ▶ 임 수습기자 오연우 (미용2 25)
- ▶ 임 수습기자 이요한 (미용2 25)



서경대학교, 제75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청춘의 열정, 세상과 만나다”



서경대학교는 지난 14일 교내에서 '제75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 19 이후 점차 예년의 활기를 되찾으며 졸업생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 측은 졸업생들의 성장을 축하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학생회 '한빛'이 학사복 대여 사업을 주관하며 졸업생들의 편의를 도왔다.

대여는 청운관 L층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졌으며,

보증금 포함 3만 원을 납부한 후 반납 시 1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졸업생들은 신분증을 맡기고 학사복을 대여한 뒤, 반납 과정에서 검사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학교 측은 “이번 학위수여식부터는 구형 학사복의 대여가 불가하다”며 새로운 학사복 사용 원칙을 안내했다.

한편, 서경대학교는 졸업 제도와 관련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적을 보유하고 본교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휴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후 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비용

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되고 당해 학기에 자동으로 졸업 처리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진로 준비나 취업, 학업 연장 등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식 이후 각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날 학사복을 입고 사진을 남긴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학교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며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행정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 햇갈리는 휴학 및 복학 안내... 신청 경로와 유의 사항은?



정보관은 유담관 7층 혹은 8층 데스크에 있고, 장학과는 청운관 3층 학생처 내에 있다.

등록 후 휴학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2학기 장학대상자로서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 복학은 서경포탈에 로그인하고 학부학사 → 학적 관리 →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학생] 탭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군 제대 후 복학은 학교 공지 사항에 첨부된 복학 원서를 작성하고, 전역증을 'service@skuniv.ac.kr'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조기 전역자는 복학원서, 전역예정증서, 휴가잔여확인서를 동일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년 연속 휴학해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우는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된다. 휴학 기간에도 신상정보 입력 및 변경이 가능하고 입력된 개인정보는 학교의 중요 사항 안내 등을 위해 우편 및 SMS 서비스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관련된 문의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하면 된다.

내년 군 휴학을 준비 중인 미래융합학부 1 A씨는 “미래융합대학은 이번엔 새로 신설된 학부라 누구한테 휴학을 승인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더불어, 나중에 휴학하고 복학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번 기사를 참고해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신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마음을 전해요”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 여름 보양식 지원 행사 진행

지난 7월 12일(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가 후원하고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2025학년도 풀잎봉사단과 함께하는 여름 보양식 지원 행사가 진행됐다.

9시에서 15시까지 진행된 '마음은 따뜻하게 몸은 시원하게 여름나기' 행사에는 44명의 대학생과 교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재료 손실 조'와 '속 채우기 조'로 나뉜 봉사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해냈다. 한편에서는 해신탕과 함께 전달할 여름용품 포장 및 포장 봉투를 담당한 '포장 물품 제작 조'가 열심히 물품 제작에 나섰다.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해신탕과

여름용품은 성북 2권역 내 어르신 및 거동 불편 당사자 80명에게 전달됐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안부 인사를 건네며 해신탕을 배달하고 왔다.

보양식 지원 행사에 참여한 유승윤(미용1 25) 학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그날이 유독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자분들 모두 힘을 내서 일사불란하게 해신탕 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신탕 조리과 포장을 완료하고 배달을 나갈 때 음식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말 보람찼다”고도 전했다.

그는 “배달을 완료한 후 먹었던 해

신탕은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다”며 “여러분도 한번쯤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물품을 받은 대상자의 73.8%가 해신탕과 여름용품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자 만족도 5점 만점 중 4.37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매년 봄 김장 행사, 어버이날 행사, 여름 보양식 행사, 겨울 김장 행사 등 다양한 절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출처 : 서경투데이

# 붉은 태양 아래 푸른 제주 만들자!

서경대학교 2025년 제주도 플로깅 봉사활동 '푸른 제주 대작전' 성료

지난 7월 28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 서경대학교 2025년 제주도 플로깅 봉사활동 '푸른 제주 대작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를 기획한 한빛 총학생회는 작은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 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강한 신체 단련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64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환경 정화 활동을 시작한 1일 차, 자원봉사자들은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에서부터 숙소 '오션스퀘어 리조트'까지 약 8.4km 정도를 걸었다. 2일 차에는 오션스퀘어 리조트에서 표선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숙소인 '리시온 호텔'까지 약 13km의 코스를 걸었다.

3일 차에는 리시온 호텔에서 출발해 '바다랑파도랑 펜션'까지 약 14km를 걸었다.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서로를 챙겼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 보호에 임했다. 마지막 4일

차 플로깅 날에는 15km를 걸었다. 봉사자들은 바다랑파도랑 펜션에서 마지막 숙소인 '호텔골든데이지 서귀포션'까지 해변을 따라 4일 중 가장 긴 거리를 걸었다.

플로깅을 주최한 최창조(국비 노여 20) 총학생회장은 “올해로 3년 차가 되는 서경대학교 플로깅 행사를 무탈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가 지나면서 점점 행사 세부 내용들이 보완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학과와 학년의 구분 없이 서경대학교 학생이라는 소속감으로 함께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찬 활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생회장으로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48시간... 교내 해커톤 개최

우리대학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한 '2025 SKTHON 해커톤'이 개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해커톤은 대학혁신추진사업단이 주관하고 멋쟁이사자처럼과 함께하는 행사로 2025년 7월 14일에서 8월 12일까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수를 완료했다.

△개발은 못 하지만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 △공포전환 계획이 있는 사람 △기획/디자인/개발을 하고 싶지만 팀이 없는 사람 △밤새워서 기동차게 한번 열정을 쏟고 싶은 사람이 모집 대상이었다.

팀·개인 접수 모두 이뤄졌으며 서경대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8월 14일 참가자 선정 후 8월 19일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본 해커톤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작해 실제 개발 및 발표까지 이뤄지는 체계적인 구성을 품고 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교수님과 현직자들의 깊이 있는 멘토링이 제공된다.

대회 심사 기준은 △주제 부합성(15) △문제정의(15) △독창성(15) △적합성(15) △활용성(15) △사업성(15) △발표력(10)이다. 총상금은 150만 원으로 팀별 상금과 개인별 상금으로 나눠진다. 대상은 팀과 개인 구분 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최우수상은 각 30만 원, 우수상은 각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은 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협업을 미리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팀원들과 협업해 현실로 끌어내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후 해커톤은 9월 19일에 개최식 및 아이디어 논의 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당일 공개되는 주제를 토대로 '무박 2일'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ry@skuniv.ac.kr)



▲ 출처 : 서경대학교 홍보실

알림장	
9월 1일	2025학년도 2학기 개강
9월 1~5일	2학기 수강신청 정정
9월 5일	폐강 공고
9월 8일	폐강수강정정
9월 25일	수업일수 1/4선

#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	전 국민 '96%' 신청, 소비 쿠폰이 지역에 남긴 실질적 영향	첫 출근 날 숨진 20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법·차별 문제 제기	'국민 통합'의 축제, '특별 사면'의 논란... 광복 80주년의 두 얼굴	"누군가의 서버로는 못 살아..." KBS 아나운서, 선배에게 경솔한 발언 논란	김우민,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 동메달... '포스트 박태환' 기대감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



▲ 출처 : MBC NEWS

이재명 대통령은 부임 직후 연이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며 변화된 대북 기조를 드러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북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이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탈북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남북 간 신뢰 향상을 위한 유화 정책의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두 번째 정책은 대북 확성기 철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당

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인 2024년 6월 재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확성기 재개는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 풍선 살포와 계속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책의 일환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곧바로 철거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번 철거는 외교, 안보 인사가 완료된 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되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 번째 정책은 북한 개별 관광 허용 검토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된 북한 관광은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강산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가 주목되며 북한 측의 협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

전히 존재한다. 또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발표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든 흥미 없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는 부분적인 긍정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집권 초기 기준으로 유효성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향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한 관련 대화와 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ing@skuniv.ac.kr)

# 전 국민 '96%' 신청, 소비 쿠폰이 지역에 남긴 실질적 영향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 및 사용이 시작됐다. 그 결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나 "소비 쿠폰 등장 이후 매출 증가"로 답했다. 본 정책의 취지인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95.8%인 약 4,849만 명이 소비 쿠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 남해군(83.2%), 경북 고령군(86.8%), 전남 무안군(87%), 경북 안동시(87%) 총 4곳은 신청률이 90%를 넘지 못했다. 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98.5%), 전남 보성군(98.4%), 충북 옥천군(98%) 순이었다. [참고: 한겨레]

신청률이 낮은 지역은 대체로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대가자가 많은 지역이다. 남해군의 경우 인구 가운데 60~109세 고령층 비율은 54.19%(2024년 12월 기준)다. 선불 카드가 남아 있지만, 종이형 상품권을 기다리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소비 쿠폰 잔액을 확인하려면 자동 응답시스템(ARS)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민생안전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이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참고: 한겨레, 남해군청]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 쿠폰 정책에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5.5%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고,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말한 정책 개선 방안은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가 제시됐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업(68.8%)이 가장 매출 증가 비율이 높았고, 식료품업(52.6%)이 그 뒤를 이었다. 한 국신용데이터(KCD)가 밝힌 카드 매출액 한정으로 안정원의 매출 증가 폭도 돋보였다. 소비 쿠폰 지급 첫 주에 56.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9.4%)과 전북(7.5%), 강원(6.6%) 등이 두드러졌지만, 서울(-4.0%)과 제주(-0.8%)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불편한 점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 쿠폰은 카드 형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시간대 제한, 품목 제약, 선착순 소진 방식

등으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정보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접근성 부족 문제는 디지털 기반 정책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실물 쿠폰 부족, 유통 혼선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부 전통시장에선 카드 수수료 혹은 저렴하게 파는 대신 현금만 받겠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된 소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기간에 지표가 상승하고, 소상공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령층의 이용 장벽과 품목·시간 제한에 따른 접근성 격차도 드러났다. 일각의 우려처럼 정책 효과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할 시점이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첫 출근 날 숨진 20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법·차별 문제 제기



▲ 출처 : 위키트리

지난 7월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첫 출근 당일 폭염에 쓰러져 숨진 23세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노동자 A 씨의 체온은 40.2°C에 달했으며, 당시 현지 기온은 37.2°C까지 치솟았고, 폭염경보도 발령 중이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예정했고,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첫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고국에서 막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던 청년이었기에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노동부 대구지청과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작업장에 운영질한 예방 조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휴식 시간, 그늘, 물 공급 등의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졌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성의 핵심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기업 및 공사 관계자들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 사망이 숫자로만 남는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운영질한 사인으로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검·사망 기록·산재인정에서 누락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타 매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그들의 죽음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대신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 '국민 통합'의 축제, '특별 사면'의 논란... 광복 80주년의 두 얼굴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의 아침을 맞았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엄숙함과 미래를 향한 축제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광복절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을 넘어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장이었다.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독립 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여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나눴다.

경축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순간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국

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80년 발전성과 함께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 행사에는 특별히 80개의 태극기가 단상에 비치됐다. 또한 독립 유공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특별히 독립 유공자 후손 80명이 단상 위에 자리해 8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이후 저녁 8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주권 대축제 및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거행됐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함께 찾은 빛'에서는 광복 80년의 세월을 되돌아 보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2부 '빛의 바람'은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진행됐다. 3부 '빛나는 우리'는 광복 80년, 국민 임명식을 축하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이 이어졌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러나 광복 80주년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8월 11일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2,188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에는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이 포함돼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이 실시됐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됐다.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실행됐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인물들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시행한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1%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이다.

특별 사면은 분명 대통령 교유의 권한이지만 역대 정부마다 특별 사면은 주요 정치인, 재벌 총수 등 특권층을 사면해 왔다. 따라서 매년 특별 사면이 진행될 때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는 취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번 특별 사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문화와 교류로 그리는 청년의 미래 - 청문단 · GKS의 내일을 듣다

지난 7월 19일 신문사 취재부는 청년문화기획단과 함께 영월 문화탐방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에는 청년문화기획단뿐만 아니라 본교 Global Korea Scholarship(정부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 이하 GKS) 장학생들도 함께했다. 이번 592호 기획면에서는 청문단과 GKS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기사를 준비했으며, 현장으로 영월 문화탐방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서경대학교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하 청문단)은 콘텐츠를 통한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13년 3월 26일 창단했다. 이들은 창의적·능동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실행하는 단체다.

청문단은 유엔 해비타트 공식 파트너인 유스나우가 인정한 국내 최초 청년단체로, 유엔이 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선순환 구조의 문화콘텐츠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연구 프로젝트(축제 개발 연구 프로젝트, 문화 마케팅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문화 농활 프로젝트, 방송 영상, 축제, 교육 등 여러 콘텐츠 기획 개발 및 참여 프로젝트)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지역 문화원형 발굴 스토리텔링, 지역 커뮤니티 매핑) △가치 창출 프로젝트(청년 문화의 날, 글로벌 콘텐츠, 지역 온기 나눔) 등을 진행 중이다.

청문단 운영위원장 방미영 교수는 "청문단은 지자체와 공간, 기업들과 함께 사회공헌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에 적극 동참하면서 청년들 스스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유스나우에서 인정한 청년단체가 된 만큼, 유엔이 정한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경대신문사 취재부는 청문단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 중심에 선 청년들의 생각을 들여보기 위해 13기 단장단을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 청문단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문정우).** 안녕하세요.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하 청문단) 단장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문정우입니다. 작년, 편입을 통해 서경대에 입학하게 됐고 입학 전에는 육군 전문하사와 유베이스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올해 청문단이라는 좋은 청년단체를 알게 됐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문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13기 단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A(배현승).** 안녕하세요.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 부단장 광고홍보콘텐츠학과 20학번 배현승입니다.

**Q.**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란.  
**A(문정우).** 청문단은 청년들만의 아이디어와 개성을 활용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경직된 봉사, 공헌 활동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독자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외부 단체와 협력해 홍보, 행사 기획, 콘텐츠 개발 등을 하며 2학기에는 마라톤, 백의종군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서 주최하는 12월 5일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 기획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A(배현승).** 청문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콘텐츠'를 통한 '사회공헌'을 하는 학생 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사회공헌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연탄 나르기, 요양원 도우미 등을 떠올리시게 쉽지만 이런 활동들은 '봉사'로 분류되는 활동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공헌'입니다. 봉사 활동과 사회공헌의 차이점은, 봉사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활용하는 활동이고 공헌은 '능력'과 '자원'을 사용합니다.

**Q.** 청문단이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는 점은.  
**A(문정우).** 청문단은 학생 단체지만 사회공헌 단체의 성격도 띠기에 다른 단체와 비교되는 차별점이 여럿 있습니다. 학생 단체로서는 외부 단체와 협업해 실제로 진행될 프로젝트와 사용될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기획해 보며 장기적인 협업을 통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고 사회공헌 단체로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방법

들을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A(배현승).** 청문단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하면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사회공헌도 봉사활동처럼 정해진 방식이나 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청문단, 혹은 저희에게 요청한 단체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걸 중점으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 때 얻기 어려운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저희만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Q.**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나 행사는.  
**A(문정우).** 지난 8월 16일에 있었던 SDGs 국제 콘퍼런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SG가 아닌,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단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행사여서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A(배현승).** 서비스 포 피스 재단과의 Clean City by Volunteer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장 최근에 진행한 활동이기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의 실제 봉사활동 기획, 홍보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경험하고 다른 단체와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어 신선하고 유익했어요.

**Q.** GKS 사업단과 협력해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A(문정우).** GKS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애정을 갖기를 바랐기에 함께 영월에 남아있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방문했습니다. 서경대 유학생 커뮤니티 동아리인 '다움'에 입문으로도 활동 중인 저는 외국인과의 유학생 학우들이 한국을 잘 즐기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하고 사랑받고 있지만 그러한 한류 열풍 대부분은 한국 문화 중에서도 최신 것들이기에 가장 한국다운 전통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가 문화에 대한 애정을 높여주고 오래 가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A(배현승).** 콘텐츠를 위해 간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란 무엇인가 거든요. Z, α세대부터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한 세대를 정의할 만한 단어나 문장이 없어요. 하나의 단체만을 겨냥해 콘텐츠를 짤 수 없는 시대가 된 만큼 특정 집단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콘텐츠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영월을 방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선 강원도 영월군에 남아있는 한국의 역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단장단으로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A(문정우).** 청문단만의 색깔을 정하고 싶습니다. 사회공헌이라곤 하지만 그 안에는 환경, 기아 등과 같이 흔히 연상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전제, 세대, 국가 간의 갈등 같이 여러 사회적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전부 해결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 분야만큼은 자신 있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문단을 소개할 때도 '콘텐츠를 통한 사회공헌'에서 끝나지 않고 '청문단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유의 색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A(배현승).** 이전 기사 선배님들이 이런 업적에 걸맞은 체급을 갖추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사회공헌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단체들에게 청문단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Q.** 서경대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A(문정우).** '콘텐츠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문 계열 쪽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희 청문단에서는 경력, 분야 상관없이 열정을 가진 다양한 인재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1학년 미래융합학부 학생들과 졸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현재 실무에서 알고 있는 청문단 선배들과의 만남도 주선하고 있으니 2학기 신규 단원 모집 시기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A(배현승).** 청문단은 사회공헌 단체와 공기업과 협업하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개발 경험을 쌓고 싶거나 스펙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능력과 상관없이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유담관 10층 L19호에서 새로 선발된 본교 GKS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선발된 6명의 장학생들과 기존에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장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2025년에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페루, 캄보디아, 우간다, 인도 등 총 6개국에서 선발된 6명의 장학생이 서경대학교에 배정됐다. 현재까지 누적 장학생 수를 포함해, 2025년 9월 기준 총 18명의 GKS 장학생이 우리대학 석사 과정에서 수학 중이다.

GKS 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하 NIIED)이 주최하고, 우리 대학이 주관해 운영하는 한국 정부의 대표적 국제 장학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 세계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에게 한국에서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전액 장학금을 제공해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우리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하고자 GKS 사업단장인 박정아 교수를 만나봤다.



## GKS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K-콘텐츠문화경영) 소속으로, 본교 GKS 사업단장 겸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우리 대학에 선발된 GKS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학문적 성취와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Q.** GKS 사업단이란.  
**A.** 우리 대학은 University Track 유형을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GKS 사업단을 운영해 매년 다양한 국가의 우수 장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이 학문적 연구는 물론, 한국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본교 GKS 장학생 선발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나 자질은.  
**A.** GKS 지원자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이미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들이기에 학업 성적이나 이력, 역량은 대체로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단

순 성적이나 스펙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보이는 인성과 태도, 그리고 국제 환경 적응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는 협력적 태도,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이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장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학문 공동체 안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장학생 선발 이후, 받게 되는 지원은.  
**A.** 항공료, 생활비, 등록금, 귀국지원금, 연구지원비 등 전액 장학금 지원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일부 국제 장학 프로그램이 학비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활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장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그외 우리 대학 사업단의 가장 큰 특징은 GKS 장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연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발 직후 TOPIK 성적이 없는 장학생들은 1년간의 한국어 연수를 통해 TOPIK 집중 과정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과 학습해, NIIED에서 요구하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장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언어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며, 실제로 올해는 본교 GKS 장학생 전원이 대학원에 성공적으로 진학했습니다.

또한, GKS 사업단은 장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매 학기 중강 시점에 간담회와 학업 상담을 통해 학업 및 생활 전반을 점검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경험하도록 학부생과의 교류 기반 버디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매 분기 2회 이상 문화 체험을 통해 장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사회·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장학생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해 여러 취업 지원 관련 단체들과 MOU를 체결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언어·학업 지원에서 생활 적응, 문화 교류, 진로 연계, 글로벌 네트워킹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의 운영 중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사례는.

**A.** 아무래도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GKS 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몽골 출신의 사스카(Tsogtbaatar Odonchimeg, K-콘텐츠문화경영) 장학생입니다. 2023년 NIIED 장학 사업 시스템 개편 이후 본교 대학원에 선발된 첫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바뀌며 혼란도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올해 8월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어린 자녀를 몽골에 두고 홀로 한국 유학을 결심했을 만큼 강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줬는데, 졸업식 날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만큼, 졸업 후에도 우리 사업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 GKS 사업이 글로벌 청년들에게 갖는 의미는.  
**A.** 첫째, GKS는 전역 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제약 없이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청년들의 학문적 성장과 연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둘째, 모든 장학생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연수와 다양한 문화 체험은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학생들은 다문화적 감수성과 국제적 소통 능력을 키우고, 전 세계에서 모인 동료들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셋째, GKS는 학문적 성취를 넘어 청년들이 자국과 한국, 국제 사회를 연결하는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특히 졸업 후에도 유지되는 GKS 동문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문이 한국과의 연결 고리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GKS 사업은 단순한 유학생 지원을 넘어 친한국적 가치관과 경험을 지닌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인적 자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Q.** 앞으로 사업단이 보완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부분은.  
**A.** 먼저, 한국어 및 학문 목적 언어 교육의 고도화



입니다. 현재도 맞춤형 한국어 연수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학생들의 전공 분야별 연구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과 학술 글쓰기·발표 훈련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 연계 지원의 확대입니다.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제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외국인 대상 인턴십, 취업 멘토링, MOU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이 단순히 학위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 이 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는.  
**A.** GKS 사업은 단순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학문적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며 자신을 세계적 인재로 키울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KS는 단지 장학금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단종과 역사, 현재가 어우러진 곳 - 영월 문화탐방기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경대학교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하 청년단)과 서경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서경대신문사 취재부가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단의 지역문화 탐방 프로젝트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도 영월군을 찾아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날 밤, 거센 비가 서울 하늘을 뒤덮었다. 영월로 떠나는 새벽,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이어졌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 도착한 서경대학교는 평소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빗방울을 헤치며 영월군을 향한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 비 온 뒤 운무 속, 향교에서 느낀 예(禮) - 영월향교



향교에 도착했을 즈음, 빗방울은 거의 그쳤다. 산허리에는 비 온 뒤 피어오른 옅은 운무가 걸려 있었고, 마치 신선이 머물다 간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 순간 '아, 정말 강원도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영월향교는 1985년 시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지방민의 교육을

맡았던 국립교육기관으로, 한국전쟁 때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됐지만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교에 들어서면 먼저 유생들이 학문을 익히던 명륜당이 보이고, 그 뒤로 제향 공간인 대성전이 자리한다.

명륜당에서는 다도 체험이 진행됐다. 영월향교에서 직접 내주신 송화 차와 다식은 정성스러움이 전해져 근친히 대접받는 듯했다. 노란 송화가루가 가득 섞인 송화 차는 처음 맛보는 것이었는데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다. 모양 틀로 찍어낸 알록달록한 다식은 옛날 '제리' 같은 식감을 떠올리게 했다. 마지막으로 송화 차를 마신 뒤에 차를 다시 부어 헹구며 마시는 순간, 먹는 행위 속에서도 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다음 원발을 모으는 것이 예라고 배웠다. 사실 이런 절차를 엄격히 따르지 않아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 예절을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예다. 비록 지금은 겨우 전해지는 모습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도 같은 그 마음이야말로 향교가 전하고자 하는 바였다.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리고,

## 식탁과 사진이 전하는 영월의 이야기 - 미자식당 & 동강사진박물관



미자식당 안은 이른 점심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입구 옆에는 갓 지은 밥냄새와 함께 갓가지 반찬 향이 뒤섞여 퍼졌다. 한식 뷔페답게 집밥에서는 보기 힘든 전과 나물, 장아찌까지 다양하게 차려져 있었다. 음식은 금세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또 다른 반찬으로 채워졌다. 손님들은 다음 접시에 무엇을 담을지 잠시 망설였고, 외국

인 유학생들도 능숙하게 젓가락을 놀리며 한식을 즐겼다. 식사 뒤에는 강원도의 명물, 갓 전 옥수수가 곁들여졌다.

점심 식사 후 버스를 타고 동강사진박물관으로 향했다. 2005년 개관한 이곳은 국내 최초의 공립 사진 박물관이다.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제23회 동강 국제 사진제가 한창이었고, 이를 기념해 포토 부스에서 세 컷 사진을 남길 수 있었다.

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선배가 찍어준 내 사진은 손흥주의 사진인가요, 나의 사진인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는 故 손흥주 사진가들 기리는 특별전 '보도사진가전'이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그의 대표작과 미공개 기록들이 함께 전시됐다. 전시장 한쪽에는 후배가 남긴 편지도 있었다. 절절한 진심이 담긴 글은 가슴을 서늘히 베어내며, 손흥주를 알지 못했던 이

## 강렬한 색과 거대한 공간, 영월의 복합 예술 - 젊은달 와이파크



젊은달 와이파크는 기존 주천면의 숲생 박물관을 재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과 여러 박물관, 공방이 어우러진 복합예술공간으로, 조각가 최옥영의 공간 기획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와이파크의 대표작인 '붉은 대나무'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원도 강릉의 오죽을 떠올리며, 영월 주천면의 연결고리를 붉은색 강관(금속파이프)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강렬한 붉은색 대나무가 영월 자연의 녹색과 대비되며 그 존재감을 뽐낸다.

또 다른 대표작인 '목성'은 거대한 규모로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내부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목성의 목지함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며, 마치 별 속에 들어온 듯한 묘한 기분을 선사한다. 경주의 천문대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파노라마 기능을 활용해서 서로를 찍거나 함께 사진을 남기며,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간다.

누어 있다. 붉은색 카펫 위를 걷는 긴 통로로 연결된 두 전시관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마치 우주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준다. 필자는 아래가 흰기 들여다보이는 바닥 때문에 무서워 잘 걸지 못했지만, 그곳을 겁 없이 뛰어다니며 웃는 다른 참가자들을 보며 함께 미소 짓게 된다.



## 행복을 품은 삼돌이 마을, 무릉도원 속으로 - 삼돌이 마을



'삼돌이가 행복한, 삼돌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돌이 마을은 '박힌 돌(원주민)', '굴러온 돌(귀농·귀촌인)', '굴러올 돌(예비 귀농·귀촌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이다.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화리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로, 주민 대부분

이 귀농·귀촌인이다. 무릉도원면 담계 정 말 무릉도원처럼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저 멀리 빌딩의 꼭대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폐교였던 운화분교를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되살렸고, 산골 스테이, 삼돌이 카페, 삼돌이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도 주민 주도도로 하나씩 만들어졌다.

있는 선물 뽑기에서는 참가자들의 눈에 기대가 반짝였다. 선물은 라면, 칫솔 세트, 미니 선풍기 등 소박했지만, 포장지를 벗기는 참가자들의 눈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플레이스도 켜지 않고, 편집장님과 함께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가득했다. 내일은 영월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하며 잠자리에 든다.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는 식재료를 차려진 밥상에서는 영월의 인심이 느껴진다. 외국인 장학생과 청년단 학생들이 뒤섞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니, 마음은 따뜻하게, 배는 든든하게 채워진다.

영월에서의 첫날 밤,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방미영 교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사진대회와 선물 뽑기 게임이 진행됐다. 단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모두가 선물을 받을 수



아침에 일어나보니 산에 구름이 걸쳐져 있었다.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에 새삼 자연과 가까운 곳에 와 있다는 것이 다시 느껴졌다.

비록 하루 묵었지만, 정든 숙소에 인사하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삼돌이마을 산골 스테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방에서 나는 인위적이지 않은 팬닝나무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숙소 앞에서 바비큐를 해 먹거나 '불명'을 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중, 황둔 찜뽕을 맛볼 수 있었다. 황둔 찜뽕은 영월·정선·태백 등가는 길목에서 시작된 소박한 명물이 자리를 잡으며 지역 대표 먹거리가 됐다. 따끈따끈한 갓 나온 찜뽕은 속도 팔, 고

구마 등으로 다양해 색달랐다. 삼돌이마을에서 아침으로 뜨끈한 황태해장국에 두부, 갈치조림, 파인애플 등을 든든하게 먹고 나왔음에도 찜뽕은 계속해서 들어갔다.



##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 - 영월 장릉



눈이 녹아 있어, 그곳에서 잠시 쉬고 일어나려 하자 관을 실은 지게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자리에 시신을 묻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현재 장릉이다.

중종 11년인 1516년에서야 장릉은 비로소 왕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숙종 24년인 1698년에 묘호를 단종,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장릉은 일반적인 조선 왕릉과는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산 중턱이나 아래, 배산임수에 자리한 다른 왕릉들과는 다르게 산 위에 있다. 또한 단종의 충신들을 위한 건조물이 있다.

이곳에서는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 '1457, 잠든 소년 장릉 낮도깨비'를 매주 토요일 13시, 일요일 11시에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단종의 비애, 정순왕후와의 사랑 그리고 영월 사람들의 충절 등의 영월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장릉 낮도깨비

가 재미있게 들려준다. 10월 26일까지 뮤지컬은 계속되며 야의 공연 특성상 우천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배우들의 절절한 무대를 보고 있자니 마치 그 시절에 직접 있던 것만 같았다.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과 충신들의 절개가 느껴져 마음이 몽글해졌다.

먹고는 부인 정순왕후의 연한 분 내음이 난다며 그 뒤로 어수리를 즐겨 먹었다 한다.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효능까지 좋은 어수리는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영월 대표 음식이 됐다. 밥과 함께 입맛을 돋우는 제육과 구수한 된장국,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어우러지니 한 끼는 금방이었다. 오랜만에 먹는 정갈하고 담백한 한 상에 명달아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였다.



## 단종의 밥상 '어수리나물' - 박가네



뮤지컬까지 관람하고 나니 너무 몰입했는지 허기가 켜는데 마침 점심인 '단종의 밥상'을 맛볼 시간이었다. 어수리나물밥이 바로 그것인데, 어수리는 염증 억제,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을 지니며 뿌리는 중풍, 두통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활용된다고 한다.

어수리나물이 단종의 특별한 나물이 된 데는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린 단종이 영월 유배 중 백성이 흘린 어수리나물을

먹고는 부인 정순왕후의 연한 분 내음이 난다며 그 뒤로 어수리를 즐겨 먹었다 한다.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효능까지 좋은 어수리는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영월 대표 음식이 됐다. 밥과 함께 입맛을 돋우는 제육과 구수한 된장국, 각종 나물과 김치까지 어우러지니 한 끼는 금방이었다. 오랜만에 먹는 정갈하고 담백한 한 상에 명달아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였다.

장릉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한 박심문 등 충신 열 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위에서 말한 영월 호장 엄홍도의 위패도 이곳에 있다.

## 절개를 지킨 충신들은 이곳에 - 창절서원 & 창절사



식사를 마친 뒤 다다른 곳은 창절서원이었다. 창절서원은 정조 15년인 1791년에 특별전교를 받아 창절사에서 모시는 충신을 추모하고 지역민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창절서원은 출입문인 배견루를 지나 앞쪽에 학업용 건물, 뒤쪽에 모당을 배치한 형식으로 지어졌으며 서원 강당 전면에는 윤사곡이 쓴 현판이 걸려있다. 1864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전국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지금까지도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대제를 지낸다.

충신들의 위패가 모셔진 창절사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목숨 바쳐 충절을 지킨 사육신 박팽년, 심상문, 이계, 하위지, 류성원, 유응부와 죽는 것만 못한 삶을 영위하며 절의를 다한 생육신 김시습, 남효온, 사육신과 함께

순간들로 가득했다. 다음에는 이번이 가보지 못한 청령포와 별마로 천문대에 꼭 가봐야겠다는 다짐을 뒤로 하고 서울로 향했다.



## 이제는 아쉬운 헤어짐 - 영월관광센터



영월관광센터는 관광센터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깬다. 각종 포토존과 휴식 공간, 체험 공간까지 완비돼 있으며 상

설 전시관과 기념품관까지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원래는 이곳 미디어전시관을 체험하려 했으나 시간 관계상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관광센터답게 준비된 영월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팸플릿과 푸드코트, 편안한 휴식 공간과 푸르른 잔디밭은 취재부를 즐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영월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울로 떠날 시간이 됐다. 영월에서의 1박 2일은 '영월? 가서 즐길 게 있나?'란 미숙했던 문화 탐방 전의 생각이 180도 뒤집히는



프로그램에 함께한 본교 GKS 장학생 엘리자베스는 "영월 방문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의미 있게 연결해 준 감동적인 경험이었다"며 "젊은 단종에 대한 연극과 문화 의례, 지역 한대는 여행을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 기고칼럼

##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전시회에서

이복규 (영예교수/국문학)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관람했다.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나라 위한 열과 글> 특별전!

석주 이상룡 선생은 어떤 분인가? 1858년 11월 24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부내면 용상리 법흥골(현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임청각에서 아버지 추암 이승목과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술국치 다음 해인 1911년 2월 서간도로 망명해, 재산을 쏟아부어 계몽운동과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룡 선생의 생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안동의 엄청난 부호의 집 장남으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 길을 포기한 점이다. 54세의 나이로, 가족을 인솔하고 서간도로 떠나면서 남긴 글에 그

마음이 나타나 있다.

“지금 내가 떠나는 길은 난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몸과 가족을 보존하려 한다면 객지가 고향보다 나를 리가 없다. 고향에는 문전옥답과 고대광실, 술 익는 향아리가 있어, 먹고 살며 형제간에 정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왜 고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황폐하고 궁벽한 간도 땅으로 가려 하는가? 아아, 나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객지 떠돌이 생활보다는 정든 고향을 지키며 사는 것이 유리한 줄을 석주 선생도 알았다. 당연하다. 고대광실인 임청각에서 친족과 함께 술이나 마시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인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재산을 정리해 군이 서간도로 이주하는 까닭은? 일제의 지배에 순응하며 고향에 눌러사는 것은 구차

하게 연명하는 데 불과한 삶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상의 삶,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사람다운 길임을 보여준다.

문득 다산 정약용의 글이 생각난다. “선비란 자기 집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 선비는 반드시 나라를 걱정할 줄 알아야 하며,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선비라면 자기 몸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석주는 진정한 선비였다.

이 전시회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 또 있다. 아버지 석주를 따라 무녀독남 이준형이 조국 광복의 제단 위에 피를 뿌린 점이다. 그 기록은 이렇다.

“10년 전인 1932년, 이상룡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 이준형은, 조국을 되찾기 전에 돌아갈 수 없다

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주 땅에 보냈다. 그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충족하는 것 이상의 삶,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사람다운 길임을 보여준다.

이준형이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고무공을 갖고 노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그 공은 어디서 났느냐?”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기념으로 학교에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준형은 이제는 독립할 가망이 없다고 낙심하였다. 생일이었다. 이웃 친척 어른과 더불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정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다. 기척이 없었다. 몸이 불편한 부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을 불렀다. 이웃 친척 어른이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

문이 잠겨 있었다. 장도리로 억지로 열었다. 방에 피가 흥건하고, 목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유서와 임절시가 쓰인 종이가 별꼴게 젖어 있었다. 하루를 더 살면 하루의 부끄러움만 더할 뿐이라는 절명시를 남긴 채...

맞다. 자원의 보고인 싱가포르가 일제에 의해 함락되던 날, 대부분의 인사들이 친일파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준형은 달리 반응했다. 친일파가 된 게 아니라 목숨을 버려 항거했다. 아버지의 정신이 아들로 계승된 셈이다.

석주 부자 같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늘을 움직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전시회였다. 광복 80년이지만 아직 완전한 광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제로 살아야 할까? 강력한 도전을 주는 전시회였다.

| 기자의 눈 |

## [이등병의 편지 ⑥] 이등병의 편지

오월에도 하얀 입김이 밤하늘을 메우고, 수두룩한 별들 사이로 청춘들의 이야기와 오고 가는 곳에서 당신께 안부 전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이 편지는 만인에게 보내는 편지, 여기서 ‘당신’ 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대입니다.

이 글이 어느 계절에 당신에게 당도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계절이든, 그 계절을 완연히 즐기고 있길 바라요. 여름날 땀에 젖은 비릿한 셔츠, 겨울날 오들오들 떨리는 온몸의 진동이 어떤 정감 실었는 데, 이곳에 있으니 싫어하던 것들도 그리워지더군요. 여기서도 나름 계절을 즐겨보고 있고 있어요. 여름엔 검정치마의 <TEEN TROUBLE> 앨범과 이디스 위튼의 <여름>을 읽었고요. 겨울엔 밤하늘을 희색빛으로 물들이는 눈을 멍하니 보다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들었어요. 멍하니 있다가 문득 행복했던 때

가 보글보글, 수면 위로 떠올라 그림곤 해요. 그리고 곧이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감정에 자주 잠식되곤 해요. 집은 그다지 그림자 없는데 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집과는 달리 그 시절로는 영영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때의 충만한 행복을 후회 없이 만끽했다고 생각해서, 후회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진 않고 금방 깨어나는 편이예요. 그 시절만큼 즐거운 시간이 미래에 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의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행복은 가끔씩 당신을 찾아오는 소포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만들고 가꿔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 행복을 잔뜩 머금은 현재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기대가 있는 미래와 미련이 없는 과거를 만들길.

여기선 자주 삶이 벼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말 힘든 날엔 하늘의 달을 지긋이 바라보곤 하는데, 여기 달은 워낙 선명하고 밝아서 바라만 보기도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의 안식처가 하나씩은 필요하죠.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한대요. 거창할 필요 없고 당신이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요. 정 없다면 저와 같이 달을 보시겠어요? 달은 어디에 있던 만큼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기 좋은 곳에 떨어져 있어도 같은 달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어쩔 땐 같은 시선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제 친구들의 행복을 기원해요. 하지만 제 빈자리가 무색하게, 제가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는 것은 솔직히 마냥 기쁘지

만은 않았어요. 고해하자면, 유치한 질투도 느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 친구들은 다시 만났을 때 불과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하게 다가와 왔어요. 제 유치한 질투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주변 지인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군대에서,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정말 말 그대로 ‘이등병의 편지’를 구구절절 이어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오랜 만이라 두서가 없네요. 하지만 편지 만큼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기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이야기해 본 적, 언제 인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한 번씩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읽어준 그대, 안녕! 이 광활한 우주에서 같은 행성, 같은

시간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문학적 확률을 뚫고 만난 인연이예요. 게다가 저와 당신은 이 글로 이어져 있으니, 실로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당신 곁에 이러한 수많은 인연이 있음을, 당신 뒤에 무수한 응원이 있음을 항상 유념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그저 존재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죠. 부디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저도 저 북녘의 먼 곳에서 당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갈게요. 오늘 저녁, 달을 통해 만나요!

전준혁 객원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사설

## 점점 낮아지는 졸업의 문턱, 대학의 개혁

지난 3월, 서경대학교 교무처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8월 졸업 예정자부터 변경된 졸업요건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본교가 단행한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부차적 졸업요건 폐지다. 이수 학점 및 학기 충족, 교양 필수 교과목 이수, 학과별 졸업요건 이수는 일부 변동 외에 그 기초를 유지하되, ‘공인어학 성적 취득(영어·중국어·일본어 총 토픽 1)이나 대체 교과목 4학점 이수’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CREOS캠프’, ‘SKON캠프’, ‘DREAM캠프’ 등 비교과 인증 제도도 사라졌다. 이로써 서경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졸업요건 충족과 관련된 부담을 대폭 낮췄다. 아직 졸업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본교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된다.

이와 같은 졸업요건 완화의 움직임은 비단 서경대만의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대학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사한 조정을 진행해 왔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취업난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가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들의 졸업을 지원하고 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들 또한 “졸업요건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예로 성균관대학교는 ‘3품(봉사활동·외국어 능력 시험·IT 자격증) 인증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수 없도록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21년엔 수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졸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참고: 연합뉴스).

또 중앙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자 검정시험 응시를 통한 한자 3급 자격증 취득을 요구해 왔다. 해당 자격증 취득을 포기할 경우에는 2개의 한자 교양 교과목을 수강해야 했는데, 최근 들어 대학은 한자 4급 취득으로 인정 급수를 낮추고, 한자 교과목 1개를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의 문턱을 소폭 낮췄다.

졸업요건 완화의 흐름은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확인된다. 성대신문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모든 재학생에게 의무화했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DS 교육과정)을 통합·축소했다. 해당 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 교수는 “신입생 상당수가 이미 입학 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 기초 과목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졸업요건 개편이 단순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 시대적 수요에 맞춘 교육 체계 재정비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의 이러한 변화는 분명 많은 학생에게 환영받을 소식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래도 해외에 비해 졸업이 쉬운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요건을 계속 낮추면 오히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올해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한 우리 서경대학교 역시 졸업요건을 단순 ‘기준 낮추기’에 그치지도록 바뀌는 안 된다. 졸업요건을 포함한 일련의 학사 과정이 기존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재학생과 새로운 교육과정도 도입되는 신입생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교가 시대적 요구와 교육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 수습의 눈 |

## 당신이 ‘꼰대’라 부른 그 사람, 조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든 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원, 즉 ‘베테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들을 종종 ‘꼰대’ 취급하며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베테랑 없는 조직은 절대대로 오래갈 수 없다.

기자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보며 베테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당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5세로, 매우 젊은 선수들로 구성됐다. 여론은 이들을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강력한 팀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한국은 16년 만에 월드컵 무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월드컵 종료 후, 선수

들과 전문가들은 실제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팀을 이끌 베테랑의 부재였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젊은 선수들은 심리적 부담과 경험 부족 속에 경기를 치러야 했다. 베테랑 선수가 있었다면 경기 운영과 정신적 안정에서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는 비단 축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문사에서든 수습기자끼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신문사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기자의 과거 각골난항 행사를 취재할 때 리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하지만 수습기자에 불과했던 터

라 허술한 모습만 보였다. 자신의 업무조차 감당하기 벅했다. 취재를 함께한 화병 기자는 “컨트를 타워가 없어서 힘들네요. 역시 경험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라며 고충을 털어냈다. 세한 기자 역시 “형님은 나이만 많지 경험은 없잖아요. 다음 행사 때도 간부님 없으면 신문사 서비스 종료돼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간부 없이 병사들로만 구성된 부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더불어 전시 상황도 발생할다.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베테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요즘 사회에서는 베테랑의 조언과 지적을 ‘꼰대 짓’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베테랑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슨 말을 해도 ‘꼰대’라는 낙인이 찍히니, 베테랑이 입을 열기 어려운 현실이다. 물론 베테랑이 일방적인 지적만 반복한다면 조직의 결속력에 금이 갈 수 있다. 베테랑도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수다.

팀원들은 자신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은 위해서 베테랑의 조언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베테랑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경험이 있다면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경험과 그로부터 나온 통찰력이다.

이렇듯 진정한 조직의 발전은 베테랑의 ‘경험’과 팀원들의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베테랑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팀원들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때, 그 조직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 수습의 눈 |

## 새로운 학교, 학년, 방학 그리고 생각

길어 보이던 2025학년도 1학기가 끝나고 시한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여름 방학도 이제 끝을 맞이한다. 사실 돌아켜 보면 아직 기억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방학은 언제나 영원할 것만 같았다.

중학생으로서 맞이하는 방학도 고등학교로서 맞이하는 방학도 그랬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은 예외다.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이 될 때까지 경험한 방학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학원과 공부로 채워졌었다. 학교를 가지는 않지만, 숙제와 공부할 거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때도 있었다.

코로나 시기 중학교에 재학 중이

던 나로서는 방학이 이름만 다른 개학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영원히 이어지는 즐거운 방학은 허상이라고 결론지었던 적도 있다.

서경대학교는 25학년 신입생, 편입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교일 것이다. 그들처럼 나에게도 서경대학교는 새로운 학교이다.

학년 또한 새롭다. 사회인이 되기 전 준사회인으로서 갖게 되는 마지막 학년의 시작인 1학년이다. 초중고 시절보다 자유롭다만 자유롭지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한 걸음씩 어찌면 열 걸음씩 다가올 수도 있다.

미지는 두렵지만 그만큼 호기심이 가지기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정형화됐던 초중고 시절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고 신기하고 재밌다.

또한 대학에 와서 보낸 첫 방학은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의 비정함과 사회의 냉혹함을 마주하기엔 아직 어리지만 비슷하게 반복되던 일상을 탈피하고 미지를 헤쳐 나갈 토대를 조금이나마 세운 것 같다.

다음 학년을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지 않고 시험의 압박과 부담이 현격히 적어진 채로 보낸 이번 방학은

다양한 장소와 상황, 기분이 어우러져 개인적으로 다채로운 느낌을 받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게임을 하거나 라면보다 복잡해 보이는 음식을 조리해 보거나 하는 등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시도한 느긋한 선택지들은 새로운 경험이 주는 만족감을 충분히 제공했다.

시간과 목표 달성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마음껏 누리려는 사치는 정말 달콤했다.

이처럼 새로운 학교, 학년, 방학이라는 미지에 답변해 가며 채워나간 2025년의 상반기는 나에게 잊고 있던 오래된 재미를 깨워주는 듯한 기분을 남겼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책

홀로 선 세상 속에 그대를 지켜줄게요 - **내일의 으뜸** 김병



▲ 출처 : 예스24

“시간이 돌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이번에는 내가 널 지켜줄게. 꼭, 너의 내일을 바꿔줄 거야”

『내일의 으뜸』은 과거로 돌아간 열성팬 ‘임술’이 자신의 최애 연예인 ‘류선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타임슬립 로맨스 소설이다.

어느 날, 밴드 갑자전 멤버 류선재가 과다 약물 쇼크로 죽음을 맞이한다. 최애 연예인의 비보에 임술은 큰 충격에 빠진다. 이에 류선재의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그곳

에서 우연히 한 남자가 떨어뜨린 회중시계를 줍게 된다.

회중시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신비한 장치였다. 임술은 시계를 이용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류선재의 죽음을 막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과거로 돌아간 임술. 그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류선재의 학교에 잠입한다. 임술은 류선재의 미래를 알고 있기에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류선재 사망 원인인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선물하는 등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또한, 약물 혼합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과연 임술은 류선재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책은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원작 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소설과 드라마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류선재를 살리기 위한 임술의 간절한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지만 두 매체는 세부 설정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드러난다. 드라마 속 류선재는 밴드 이클립스의 인기 멤버로 등장한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완벽했던 4인조 그룹, 갑자전에 늦게 합류했다는 이유로 안티팬이 가득한 캐릭터다.

이 외에도 류선재의 사망원인, 임술의 가족 관계, 주요 악당의 존재 등 차별화된 전

개가 돋보인다.

소설 속 류선재는 수많은 악플로 고통스러워한다. 이로 인해 불면증과 수면제를 달고 산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온 임술을 통해 성장하고, 상처를 치유받는다. 이는 독자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임술과 류선재의 러브라인도 소설의 깊이를 더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타임슬립 로맨스는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류선재 곁을 든든히 지키는 갑자전의 리더 ‘백인혁’의 존재 역시 눈여겨볼 포인트다. 백인혁의 묵묵한 리더십과 두 사람의 우정은 작품의 또 다른 감동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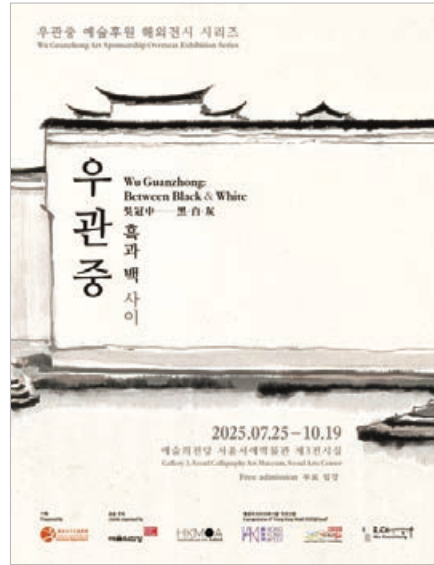
더불어, 팬과 연예인의 사랑이라는 판타지 설정도 이 소설의 매력 중 하나다. 팬들에게 연예인은 그저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팬과 연예인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설렘 포인트를 자아낸다.

소설은 성장, 상처, 치유 등 많은 메시지를 전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여기에, 드라마와 함께 보면 재미를 두 배 더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내일의 으뜸』을 읽으며 선재, 솔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전시외

검은 먹과 흰 여백, 동서양을 잇는 화폭 - **우관중: 흑과 백 사이**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만약 국제 현대미술 전시에 중국 작품을 단 두 점만 내야 한다면, 나는 짙은 옷칠 패널 하나와 흰 선지 한 장을 내겠다.”

20세기 중국 화가 우관중(1919~2010)이 남긴 이 발언은, 그가 평생 탐구해온 흑과 백의 세계를 함축한다.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우관중: 흑과 백 사이〉는 이 거장의 예술적 궤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홍콩예술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작품 17점이 엄선돼

한국 관객 앞에 공개된다.

우관중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 수묵화에 몰두했다. 1940년대 프랑스로 건너가서 구 미술의 조형성과 추상적 감각을 익혔다. 귀국 이후 그는 동양의 정신성과 서양 모더니즘을 결합해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했다. 만년에는 다시 수묵화로 돌아와 단순한 흑백 화면에서 회화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그에게 검은 선과 흰 공간은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감정과 사유가 교차하는 장이었으며, 동서양을 이어주는 매개였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이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우관중 컬렉션을 보유한 홍콩예술박물관이 한국에서 단독전을 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 회상(Remiscences of Jiangnan) △수로(Waterway) △두 마리 제비(Two Swallows) 등 대표작들이 출품되어 그의 회화가 지닌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섬세한 감수성, 추상적인 구도 그리고 강렬한 생동감이 동시에 어우러져 관객을 압도한다.

전시는 작가의 생애 여정을 따라가듯 구성됐다. 초기 수묵 실험작에서 출발해, 프

랑스 체류 시기에 형성된 유화 작업, 그리고 노년에 완성된 흑백의 능밀한 화면까지 작품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진다. 관람객은 그림 속 먹빛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울림을 따라가며, 회화가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전시 관계자는 “우관중은 최소한의 색채로 무한한 상상력을 열어 보인 화가”라며 “이번 전시는 동서양의 미학이 교차해 만들어진 새로운 예술 언어를 경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관중: 흑과 백 사이》는 단순히 거장의 회화를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다. 색이 사라진 공간에서 오히려 무한한 감정과 사유가 솟아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동시에 동서양 미학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며 생성된 창조적 긴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검은 먹과 흰 여백 사이에서 관객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삶과 예술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07.25.(금)~2025.10.19.(일)
- 관람시간 : 10:00 ~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서울] 서예박물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 관람비용 : 무료

오늘의 장소

폐정수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 **선유도 공원**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양화한강공원 남쪽을 걷다 보면 작은 섬과 연결된 무지개 모양 다리 ‘선유교’가 나타난다. 선유교를 건너면 비로소 선유도 공원을 만나볼 수 있다. 선유도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영등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02년 4월,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을 선사하는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공원의 주요 공간으로는 △이야기관 △녹색 기둥의 정원 △수질정화원 △네 개의

원형 공간 △선유교 전망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환경 교실, 선유정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 즐길 거리가 많다.

필자는 한낮에 방문해 공원 한 바퀴를 돌아봤다. 공원이 넓고 볼거리가 다양해 한 시간 넘게 둘러봤다. 도심에서 생활하다 오랜만에 자연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니 여유로움이 생기고 치유받은 기분이 들었다. 가

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질정화원’에 있는 연꽃이었다. 분홍색, 흰색, 보라색의 다양한 색과 크기는 시각적으로 큰 즐거움을 주었다.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 덕에 사진을 남기는 듯했다. 이야기관과 선유교 한 편에 사진명소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에 들려 추억을 남겨보는 걸 추천한다.

오는 길은 다양하지만, 버스를 타고 ‘선유도공원’ 정류장에 내리는 것을 추천한다. 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가용은 장애인 주차만 가능하며, 일반 차량은 양화한강공원 3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익숙한 한강에서 색다른 재미를 찾고 있는 사람, 도심 속에 지쳐 자연을 통해 치유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장소로 와서 산책도 하고 휴식을 취해보길 바란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 운영시간 : 06:00~24:00
- 이야기관 운영시간 : 09:00~18:00(동절기 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오늘의 영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 **케이팝 데몬 헌터스 (2025)**



▲ 출처 : 네이버 영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낮에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K팝 슈퍼스타, 밤에는 팬들을 지

키기 위해 악마를 사냥하는 비밀스러운 영웅. 이 이중생활이라는 독특한 설정은 그 자체로 흥미를 자아낸다. 작품은 정수급 걸 그룹 ‘헌터스(HUNTR/X)’가 속적인 악마 보이 그룹 ‘사자 보이즈’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닌, 작품의 정체성이자 핵심적인 마케팅 동력이다. ‘Golden’이나 ‘Soda Pop’ 같은 곡들은 영화 개봉과 동시에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플랫폼을 장악했다. 또한 바이럴 된 음악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시청자를 넷플릭스로 유도하고 그 시청자가 또 다른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특히 ‘Your Idol’은 현지 시각 7월 4일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데일리 톱 송 1위를 차지했다. 이는 BTS 정국, 지민과 블랙핑크 로제만 가진 대기록이다. 또한 현지 시각 7월 8일 공개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OST 7곡이 입성하면서 영화의 위상을 알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해외에서 제작된 최초의 케이팝 소재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역사상 최초의 케이팝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다.

작품 곳곳에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엿보이는 디테일이 숨어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 요소, 귀신과 재앙을 몰라린다는 전통 검술의 상징인 사인참사검과 같은 전통 무기의 활용 등 접근하기 쉬운 판타지 서사 안에 이런 문화적 맥락을 성공적으로 녹여냈다.

이 작품은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이 한국 문화에 대한 헌사로 기획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할리우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나 탄생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환호를 받는 하나의 문화적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음악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록

무더운 여름도 제풀에 지쳐가는 여름의 끝자락이 다가왔다. 즐거웠던 방학과 함께 유난히 길다고 느꼈던 울머음에도 작별을 고할 시간이다. 지나갈 여름을 추억하며 다가올 가을에 인사하는 이 시기에 듣기 좋은 음악 세 곡을 소개한다.



▲ 출처 : 지니뮤직

♪ 〈Numb〉 - Linkin Park

“I’ve become so numb, I can’t feel you there. Become so tired, so much more aware. I’m becoming this, all I want to do is be more like me and be less like you.”

너무 무감각해져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없다 라는 가사처럼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뚜렷하던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희미해져 간다. 지친 여름을 보내며 맞이하는 이번 가을을 이 노래와 함께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자.



▲ 출처 : 지니뮤직

♪ 〈The Pretender〉 - Foo Fighters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마치 자신이 ‘다른 계절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번 여름이 부르는 듯한 곡이다. 기록적인 폭염을 동반한 여름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며 더 이상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여국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느낌을 받는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출처 : 지니뮤직

♪ 〈Can't Stop〉 - Red Hot Chili Peppers

“The world I love, the tears I drop. To be part of the wave, can't stop. Ever wonder if it's all for you?”

“내가 흘린 눈물이 파도의 일부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며 여름을 향해 눈물 흘리지만, 가을을 원하는 마음도 부정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가사이다.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울리는 시월한 기타 리프는 특히나 곡 전체의 흐름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다.

오늘의 스포츠

김우민,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 동메달...‘포스트 박태환’ 기대감

김우민이 한국 수영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는 ‘2025 싱가포르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에서 3분 42초 6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 수영 대표팀은 2019년 광주 대회부터 이어온 세계선수권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김우민은 금메달을 획득한 독일의 루카스 메르텐스(3분 42초 35), 은메달을 획득한 호주의 새뮤얼 쇼트(3분 42초 3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자유형 400m 종목에서 ‘절대적인 일인자’로 불리는 루카스 메르텐스와 격차를 크게 줄인 점이 고무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김우민의 주된 목표는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취득해 일찌감치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2024년 12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공식 경기가 없었고, 컨디션도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우민은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한국 수영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이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따내며 역사를 썼다. 당시 박태환은 ‘수영 불모지’로 여겨지던 한국에서 신체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줬다. 그러나 박태환은 퇴 이후 한국 수영은 후계자를 찾지 못해 국제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 출처 : OSEN

2024년, 국가 차원에서 공들인, 이른바 ‘박태환 키즈’ 사업의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우민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 동메달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었다.

사실 김우민은 파리 올림픽 전까지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다. 여론은 2020 도쿄 올림픽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가해 자유형 200m에서 7위를 기록한 황선우를 주목했다.

기업체들도 황선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스폰서십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김우민 역시 예선에서 부진한 기록을 남기며 국민들의 기대도 한때 사그라졌다. 그러나 김우민은 결승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이변을 일으켰고, 당당히 동메달

을 목에 걸었다. 이는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박태환이 취득한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나온 메달이었다.

시장이 흘러 김우민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박태환’의 탄생을 암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우민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후반 스피드 능력은 이미 박태환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김우민의 이번 수상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아시안 게임,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 최고 기록(3분 42초 42)을 경신해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더 나아가 박태환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한국 기록(3분 41초 53) 경신도 시야에 두고 있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